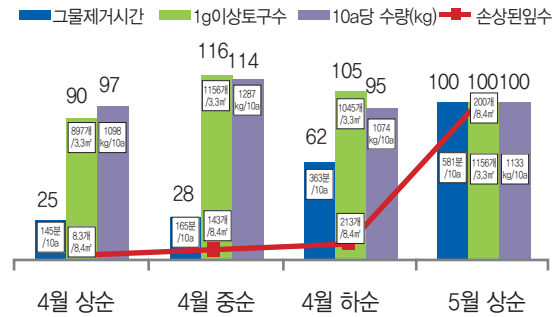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마늘·양파 봄철 관리요령



01 적기에 마늘 싹 꺼내기를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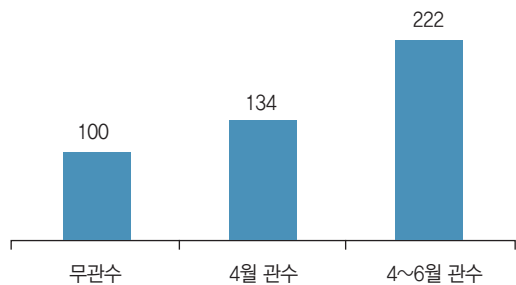
- 한지형마늘 무공투명비닐 멀칭재배 시 마늘 싹이 10~15cm 자랐을 때 비닐을 절개하여 꺼냄.
- 싹을 꺼내지 않고 비닐을 일시에 벗길 때는 미리 30~40cm 간격으로 구멍을 내어 순화시킨 후, 4월 상·중순경 벗겨줌.
- 난지형마늘 소립주아 그물 테이프 피복재배는 4월 상중순에 테이프를 제거함.



〈난지형마늘 소립주아 그물테이프 제거시기별 비교〉

02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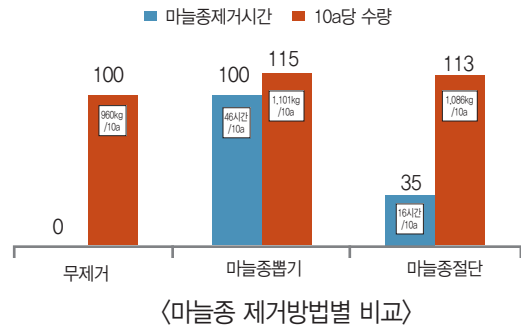
- 봄철 생육 재생기 이후, 특히 구비대기에 많은 물이 필요함.
- 15일 간격으로 30mm 정도 관수함.
-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이랑 위로 주는 것이 좋음.
- 고랑에 물을 댈 때는 고이지 않게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함.



〈마늘밭 관수시기별 수량지수〉

03 마늘종은 빨리 제거 합시다!

- 종을 빨리 뽑을수록 구의 비대에 유리하므로 2~3회에 걸쳐 뽑아줌.
 - 오전 일찍, 해질 무렵에 잘 뽑힘.
- 난지형마늘은 마늘종 가격추이를 보아가며, 뽑는 시기나 방법을 결정함.
- 뽑기보다 절단이 노력 절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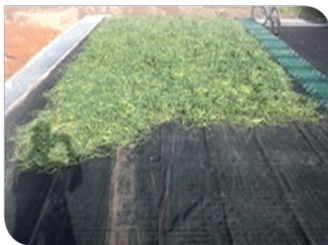
04 주아재배용 총포를 채취합시다!

- 대주아용 : 마늘수확 건조 후
- 소립주아용 : 종 출현 10~15일후, 종대 최대한 길게 자름.
 - 후숙 : 마늘 사이, 노지차광막, 비가림하우스(장마 이전)
 ⇒ 통풍이 잘되는 창고에서 후숙 저장(파종 전까지)

〈소립주아를 확보하기 위한 후숙용 소립주아 채취 과정〉



미숙주아 채취용 마늘종은 최대한 길게 절단 (종 출현 10~15일후)



마늘 사이나 노지 차광막 덮어 후숙(장마 전)

창고 후숙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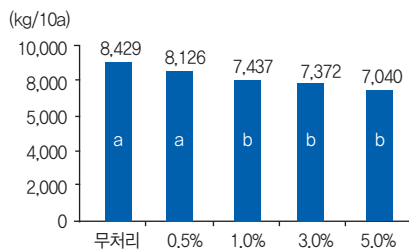


05 잡초는 일찍 제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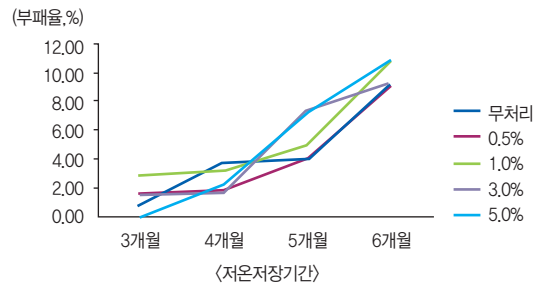
- 마늘 · 양파 뿌리는 땅속 10~15cm에 분포하므로 잡초가 많으면 수량과 저장성이 떨어짐.
- 발생한 잡초는 일찍 뽑아 주되 양파 뿌리나 잎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되, 피복비닐 위에 흙을 덮어 잡초 발생을 억제함.

06 칼슘제 엽면살포 효과는 없습니다!

- 염화칼슘 엽면살포 시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이며, 저온저장 5개월 이후부터는 부패율 감소 효과도 없음.



〈칼슘제 처리농도별 수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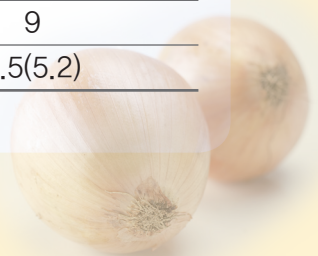
〈칼슘제 처리 저장기간별 부패율〉

07 양파 구 비대제는 사용하지 맙시다!

- 구 비대제 살포에 따른 증수 효과는 없음.
- 일부 구 비대제는 오히려 저장성이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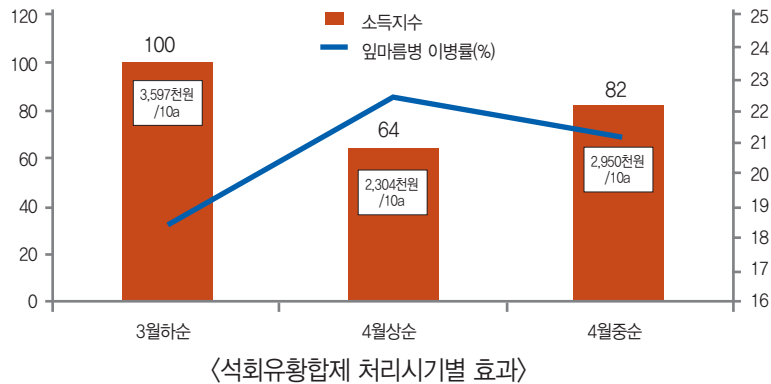
08 마늘 양파 웃거름 주는 량

	1차		2차	
	요소	황산가리(염화가리)	요소	황산가리(염화가리)
마늘	17	9	17	9
양파	17	9.5(5.2)	17	9.5(5.2)



09 병해충은 친환경적으로 방제합시다!

- 친환경 재배를 위하여 한지형 마늘은 3월 하순경부터 석회유황합제 1,000 배액을 15일 간격으로 4회 처리함.
- 12시~오후 2시를 피해 지상부에 약액이 흐르게 충분히 뿌려줌.



10 병해충은 적기에 방제합시다!

구분	9월	10~2월	3월	4월	5월상순
흑색썩음균핵병	(파종전) 종구처리, 입제살포		피해 포기 제거		
노균병		1차피해예방	2차 감염 예방 (피해주 제거)	발생초기 적용약제 살포	
녹병			(발생 초기) 적용약제 살포		
잎집썩음병 (춘부병, 무름병)			(고온, 강우) 세균방제제	(고온, 강풍, 강우) 세균방제제	
잎마름병			(친환경방제) 석회유황합제		(종 출현 시) 곰팡이방제제
뿌리응애, 선충 작은뿌리파리	(파종전) 종구소독		(피해 초기) 입제		
고자리파리	(파종전) 입제살포		(피해 초기) 입제		